

碩士學位論文

天主教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教育에 미친 影響

指導教授 李 杺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梁 哲 豪

1999年 8月

# 天主教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教育에 미친 影響

指導教授 李 杻 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梁 哲 豪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梁哲豪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 天主教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教育에 미친 影響

梁 哲 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 專攻

指導教授 李 杻 杻

본 연구는 제주도 근대여성 교육의 태동에 큰 공헌을 한 천주교의 교육 사업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이를 위해

첫째 천주교의 우리나라 전래 과정을 학문과 신앙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고,, 둘째 제주도의 전래과정을 신앙적 측면에서 탐색했으며, 셋째 구한말의 제주도 교육 환경과 신성여학교의 설립·폐교과정을 통해서 천주교의 교육사업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천주교의 교육사업이 제주 근대여성 교육의 태동과 공·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그 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개척적인 신앙심을 발휘하여 선교사의 도움없이 독자적 신앙공동체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여성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없었다. 다만 가정안에서 문자교육을 받았으며 계급의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부 문맹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주교의 교육사업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주의 근대여성 교육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신성여학교의 개교를 통하여 제주도 최초의 근대교육의 선형적 역할을 하였으며 둘째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여성의 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셋째 지역 실정에 맞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계발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16년 7월 신성여학교가 폐교된 이후 1946년 복교될 때까지 제주의 공교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당시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사설강습소인 여수원을 설립하는등 제주도의 여성교육, 초등교육 등 제주교육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효시로 남을 것이다.

# 目 次

I. 緒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	1
2. 研究의 目的 .....	2
3. 研究 方法 .....	3
II. 天主教의 우리나라 傳來 .....	4
1. 學問의 대상으로서 天主教 .....	4
2. 信仰의 대상으로서 天主教 .....	10
III. 天主教의 濟州島 傳來 .....	17
IV. 天主教의 敎育事業 .....	23
1. 舊韓末의 敎育環境 .....	23
2. 濟州島에서의 天主教 敎育 事業 .....	25
1) 濟州의 近代敎育 .....	25
2) 晨星女學校의 設立 .....	28
(1) 開 校 .....	28
(2) 敎育內容과 學生 .....	33
(3) 閉 校 .....	38
3) 기타의 影響 .....	41
(1) 公敎育에의 影響 .....	41
(2) 近代 私學에의 影響 .....	42
V. 結 論 .....	45
<참고문헌> .....	47
<Abstract> .....	50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천주교의 한국 전래가 20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천주교에서 실시한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미한 반면 천주교보다 약 100년이나 늦게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신교의 교육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천주교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지 벌써 200년이 지나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전래된지도 100년이 되었으나 천주교의 교육사업이 교육사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천주교회가 교육사업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sup>1)</sup>

첫째,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 오랫동안의 박해기간(1784~1886)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신도의 분포가 지방 또는 산촌에 분포되어 정규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웠다.

둘째, 오랫동안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육사업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적었다.

셋째, 사료의 공식적 공개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 방면에 자료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는 박해시대에 서구교육 수용에 선형적 활동

---

1) 金治東(1974), 舊韓末 天主教會의 教育事業에 關한 考察,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3~4.

을 전개했으며 과란이 중첩한 한말과 일제시대에 차분하게 서민 대중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 전국 각지에 학교를 운영하며 민중 계몽에 기여한 바 크고 해방 후 팽배하는 교육열에 발맞추어 보통교육에서 특수교육,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sup>2)</sup> 우리 나라의 근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한국천주교회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지 100년 후 제주도에 도 자생적으로 전파되어 제주도 교육사에 기여한 의의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사실이 구명되고, 바로 인식되어 제주도 근대교육사에 공헌한 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2. 研究의 目的

천주교가 유교적 전통과 쇄국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전래되어 박해를 거치는 동안에도 꾸준히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규모는 작으나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1855년에 천주교 베론신학교를 설립, 서구식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근대 교육의 선형적 역할과 더불어 사회 계몽에도 앞장섰다.

제주도에서도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교육보다도 4년이나 앞선 1903년에 천주교에 의해서 교육사업이 실시되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근대 여성교육의 태동에 큰 공헌을 한 천주교의 교육사업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제주교육사에 끼친 영향을 밝혀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 천주교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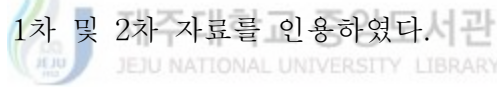
2) 李元淳(1979), 韓國天主教 教育事業의 教育史的 意義, 「사목64호」,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p. 17

둘째,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셋째, 근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넷째, 천주교가 제주도 근대 여성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3.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가설의 논리적 타당화 근거를 과거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문헌 및 기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나가는 문화 기술적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의 천주교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제주도내 향토지, 천주교회사, 교육사, 당시 성직자들의 서한, 보고서, 잡지, 선행 연구 보고서등 1차 및 2차 자료를 인용하였다.



## Ⅱ. 天主教의 우리나라 傳來

### 1. 學問의 對象으로서 天主教

조선조 후기부터 전통적인 유학사상은 述而不作의 절대에서 탈피되어 백가(百家)의 비평이 가해지자 유학자체의 모순이 노정되었다. 이의 보완을 위하여 지식인들은 새로운 자세로서 학문의 추구를 실현하였으니 곧 실학이 대두된 것이다. 즉 중국에서 북학과 서학이 전래되었고, 조선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적 반성속에서 새로이 일어난 학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중 ‘經世致用’의 學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柳馨遠의 학문을 이어 一學派로 이룩한 학자는 肅宗朝의 星湖 李瀼이었다.

李瀼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가 배출되어 실학은 점차 학계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星湖와 그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한 문인들 사이에는 당시 전래된 서학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의 경향을 나타나게 되었다.<sup>3)</sup>

그 하나는 서학을 천주교라는 하나의 종교로서 이해하고 종교생활을 실천한 洪儒漢, 李檠, 李承薰, 權日身, 丁若鍾 등을 들 수 있으며, 또다른 하나는 서구과학문명에 관심을 가졌던 자들로 실생활에 응용하여 과학으로 발전시키려던 洪大容, 申景濬, 丁若鏞, 崔漢綺, 金正浩 등을 들 수 있다. 즉, 조선에 전래되었던 서학이란 개념은 歐羅巴의 과학기술문명과 천주교사상이라는 양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3) 金良善(1960), 韓國實學發達史, 崇大論文集 v. 5, pp. 26~27. ; 裴賢淑(1981), 17·8世紀에 傳來된 天主教書籍, 「教育史研究」, 第三輯, 韓國教育史研究所, p. 3에서 再引用



다. 18世紀 당시 歐羅巴의 과학기술문명을 수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천문(天文), 역법(曆法)에 있어서는 金堉 등이 時憲力을 받아들이는 등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천주교사상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통사상과의 충돌<sup>4)</sup>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여러 학자들은 천주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위정자들은 혹심한 탄압을 하였던 것이다.<sup>5)</sup>

우리 나라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래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중국을 상대로 서적으로만 수입한 서적 수입 시기이며, 제2기는 프랑스를 상대로 한 천주교 선교사의 잠입기이고, 제3기는 미국을 상대로 한 개신교 선교사의 도래기이다.<sup>6)</sup>

천주교의 전래 경로를 보면 먼저 일본과 중국에 전래되었는데, 일본에는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원 프란치스코 사베리오(Franciscus Xaverius)신부에 의하여 1549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소개되었고, 이후 사베리오신부와 동료 예수회원 신부들은 수십 명의 大名·城主를 위시하여 武士, 서민 사이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다.<sup>7)</sup> 조선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 출전한 천주교 신자인 일본 병사들을 위해 聖事를 주고 미사를 집전하기 위한 신부 1명이 파견되었는데 그가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원 세스페데스(Gregorius de Cespedes)신부였다.<sup>8)</sup>

세스페데스(Gregorius de Cespedes)신부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종군 신부로 활약하며 조선에 포교할 기회를 찾았으나 조선정부의

4) 正祖 15年(1791) 全羅道 珍山에서 나타난 '辛亥珍山之變'으로 尹持忠이 母親 喪을 당하여 天主教의 지시를 따라 祭祀를 廢止하고 神主를 불사름으로서 朱子家禮를 어겼다는 罪目으로 處刑된 事件이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傳統 儒敎思想과의 衝突이다. 尹持忠은 海南의 兩班 후예로 珍山에서 출생하여 癸卯年(1783) 榜에 進士 시험에 합격하였고 丁若鏞의 外從이 되는 그는 甲辰年(1784) 겨울 明禮洞의 中人 金範禹 집에서 天主實義와 七克을 보고 天主教에 入敎하였다.

5) 裴賢淑(1981), 上揭書, pp. 3~4..

6) 李萬珪(1988), 「朝鮮教育史Ⅱ」, 서울: 기획출판 거름, pp. 24~27.

7) 崔奭佑(1982),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서울: 韓國敎會史研究所, p. 8.

8) 崔奭佑(1982), 「韓國 敎會史의 探究」, 서울: 韓國敎會史研究所, p. 27.

격리정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sup>9)</sup>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피납된 조선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그들중 신앙을 위해 순교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예수회원들은 조선에 전도할 희망과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일본 내에서의 박해와 1635년 이래의 쇄국정책으로 일본교회 자신이 전멸하게 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천주교 유입 가능성은 사라지고, 또다른 이웃인 중국을 통하여 천주교의 전래가 이루어진다.

중국은 明末에 마테오리치(Matteo Ricci)신부가 1601년 중국 황제의 정식 허가를 얻고 북경에서 포교를 개시함으로써 중국 근대포교(近代布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마테오리치(Matteo Ricci)신부에 이어 아담 샤알(Adam Schall)신부와 페르비스트(F. Verbiest)신부 등 뛰어난 과학자 선교사들이 잇달아 북경에 들어가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함으로써 북경궁정(北京宮廷)의 존경과 신임을 얻게되어 궁정선교사로서의 이와 같은 위치는 명조가 망하고 청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북경의 서양 선교사들의 학문적 명성은 조선사신들에게도 알려져 조선사신들은 서양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서양 선교사들과 만나려고 노력하였으며 선교사들도 그들과 만나 학문과 종교에 대해 필담(筆談)을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접촉이 서양문물이 조선에 도입되고 그 문화적 영향을 받게되는 발단이 되었다.<sup>10)</sup>

서학이 조선에 도입됨에 따라 학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게 되었다.<sup>11)</sup>

---

9) 上揭書, p. 27.

10) 上揭書, pp. 28~29.

11) 裴賢淑(1981), 17·8世紀에 傳來된 天主教書籍, 「教會史研究」, 韓國教會史研究所, p. 8.

그 최초의 사례가 1603년 李光庭과 權僖가 보낸<sup>12)</sup> 마테오리치 (Matteo Ricci)신부의 한역세계지도(坤輿萬國全圖)의 도입이고,<sup>13)</sup> 다음해 黃東溟이 보낸 兩儀玄覽圖가 전해짐으로서 서구문물전래에 있어서 기록상의 효시(嚆矢)가 되었고 동시대의 李晔光이 光海君 6년 (1614)에 간행한 芝奉類說에서 서학을 소개함으로써 서양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sup>14)</sup> 그후 1631년에 陳奏使 鄭斗源과 그의 譯官 李榮俊은 북경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산둥반도의 등주(登州)에서 좌옹 로드리게스(Joãos Rodriquez Tçuzzu: 陸若漢)신부를 만나 유럽의 천문추산법(天文推算法)을 배우고 한역 천문학서와 세계지도를 받았으며,<sup>15)</sup> 병자호란의 결과 인질로 심양으로 끌려갔던 昭顯世子는 1644년 淸이 遷都하게 되자 함께 북경에 입성한 기회에<sup>16)</sup> 아담 샤알(Adam Schall)로부터 서양 과학기기와 일부의 서학서를 받아 왔으나<sup>17)</sup> 조선 사신들은 북경의 선교사들의 학구열을 이용한 천주교 신앙의 인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학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sup>18)</sup>

1720년에는 奏請使 李頤命이 南堂을 방문하여 이냐시오 쾨클러 (Ignatius Kögler: 戴進賢)신부와 호세 사우레즈(José Saures: 藤霖)신부를 방문하여 천문학과 역산(曆算), 그리고 천주교에 관한 책들을 받아왔다.<sup>19)</sup> 또한 1766년 冬至使 및 謝恩使행의 군관(軍官)으로 북경

12) 裴賢淑(1981), 上揭書, p. 8.

13) 李元勇(1992), 朝鮮後期 天主教 教育事業이 韓國教育史에 끼친 影響, 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6.

14) 裴賢淑(1981), 前揭書, p. 8.

15) 李漢, 陸若漢條, 卷4, 「星湖僿說」; 김성태(1985), 歷史 안의 教會, 왜관:분도출판사, p. 218에서 再引用

16) 崔奭佑(1982), 「韓國天主教會의 歷史」,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 30.

17) 車錫基(1991), 朝鮮 西洋思想과 教育, 「教育의 理念과 實踐」, 安商元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서울:聖佑出版社, p. 711.

18) 李元勇(1992), 前揭書, p. 6.

19) 柳洪烈(1994), 한국천주교회사, 上卷, 서울: 가톨릭출판사, p. 69.

에 간 洪大容은 南堂에 찾아가 흠천감정(欽天監正)으로 있던 아우구스띠노 폰 할레르스타인(Augustinus von Halerstein: 劉松齡)신부와 안토니오 고가이슬(Antonius Gogeisl: 鮑松管)신부에게 천문학과 역산술(曆算術)에 대해 문의하고, 과학기기들을 구경하였으며,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도 할레르스타인(Halerstein)신부와 토론하였다.<sup>20)</sup>

이와 같이 북경 파견 사절단을 통해서 수많은 한역 서학서, 즉 서구의 과학기술서와 천주교 서적<sup>21)</sup>들이 조선왕국에 전래, 유포되었다. 그런데 소수의 가문에 의한 세도정치의 일당 전제체제 때문에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사림 출신의 유학자들이 몰락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양반학자(특히 南人系)들은 조선 왕조의 통치이념과 사회윤리 규범으로 채택된 유교사상의 근원인 유학이 공리공론만을 일삼고 예론(禮論)에 치우친 관념론적 학풍으로 기울어지게 되자 다시 유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현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유학, 즉 실학에 대한 탐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남인계 양반 실학자들은 서학서를 서재에 두고 탐독하는 것을 학계의 유행으로 받아들였음을, 李瀾의 제자 安鼎福(1712~1791)이 서학열에 대해

“名卿과 碩儒가 그 글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이것을 보기를 諸子書와 道教와 佛敎의 종류같이 하여 書室의 구경거리로 備置하고 있다.”<sup>22)</sup>

20) 洪大容, 湛軒燕記, 第1冊, 「劉飽問答」; 김성태(1985), 前掲書, p. 219에서 再引用.

21) 裴賢淑(1981), 前掲書, pp.11~44에서 나타난 天主教 書籍들이 導入은 총 64권으로 추정되며 그 중 14권(玫瑰經十五端, 默想, 聖經直解, 默珠神功, 聖經廣益, 聖敎淺說, 盛世芻蕘, 受難始末, 十戒, 天主教要, 天主實義, 念珠默想規程 등)은 한글로 翻譯되었다.

22) 安鼎福, 天學考, 「順菴集」, 卷17, ; 崔奭佑(1982),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 32에서 再引用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천주교는 남인학자들에 의해서 서학연구의 일환으로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천주교, 즉 천주학이 성립하였다.<sup>23)</sup>

어쩌든 서학은 학문적 관심에서 발생하였고,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와 같은 학문적 호기심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학운동의 조종(祖宗)이라 불릴 수 있는 李瀼에 이르러 그 실학의식을 배경으로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어 그 중에서도 서양문화의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의 이른바 ‘器’의 측면이 중시되었다.

李瀼의 학문적 관심은 비단 서학의 물질적 면, 즉 그 器的 측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학의 정신적 측면인 理的이고 道的인 면에도 미쳤다. 그러나 李瀼의 문인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섭취 자세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천주교를 이단시(異端視)하게 되며, 서양의 과학기술조차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sup>24)</sup>

이런 점으로 볼 때 천주교는 종교로서 보다 우선 1세기 이상이나 문헌에 의한 이론적인 연구와 비판을 거쳤다는 점을 도입과정에 있어서 특색으로 본다.<sup>25)</sup>

이외에도 북경의 선교사들은 조선 사신들과의 접촉으로 조선 전도에 대단한 관심과 희망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선교사를 파견하여 복음을 직접 전파시키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다만 수시로 서학에 관한 서적을 조선에 도입시킬 수 있었다.<sup>26)</sup>

---

23) 김성태(1985), 前掲書, p. 219.

24) 崔奭佑(1982),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p. 32~33.

25) 朴鍾鴻(1969), 西歐思想의 批判과 導入攝取. 其1 .天主學, 「亞細亞研究」, 第XII卷, 第3号,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p. 18 ; 崔相龍(1979), 天主教 教育事業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5~6에서 再引用

26) 李元勇(1992), 前掲書, p. 6.

## 2. 信仰의 對象으로서 天主教

서학 서적의 도입은 결국 조선에 천주교를 수용시키는 커다란 수확을 거두게 된다.

1770년대 후반기에 천주학을 연구하여 이를 종교로서 받아들여 실천한 학자들로는 洪儒漢(1736~1785), 權哲身(1736~1801), 丁若鍾(1760~1801), 李檠(1754~1785)과 그 밖에 주어사(走魚寺)와 天真菴의 강학회(講學會)의 회원 등이었다. 조선 초기교회가 전하는 口傳에 의하면,<sup>27)</sup> 최초로 천주교가 명하는 계명(誠命)의 일부를 실천하기 시작한 사람은 李灑의 제자인 洪儒漢으로 그가 처음으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얻어 본 것은 英祖 46년(1770)의 일이었는데, 그는 7일마다 주일(主日)로 알고 노동일을 그만두고 기도예 전념했을 뿐더러 금욕 생활과 자선행위도 많이 하였으며,<sup>28)</sup> 또한 그 가운데 천주교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던 李檠은<sup>29)</sup> 그의 친구 李承薰(1756~1801)이 1783년 冬至使行의 書狀官으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가게되어 천주교의 종교적 우수성과 교리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고 그 천주당에 서양인 선교사가 있으니 자네가 찾아보고 신경 한 부만 달라고 하고 영세받기를 청하면 그는 반드시 크게 사랑할 것일세. 기이한 물건과 좋은 노리갯감을 많이 얻어 가지고 오되 그냥 돌아오지 말게」<sup>30)</sup>

라고 하며 북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서양 성직자를 만나 천주교의

---

27) Ch. Dallet(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t.1, p.12 ; 崔奭佑(1982), 「韓國天主教會의 歷史」, p. 19에서 再引用

28) 上揭書, p. 19.

29) 김성태(1985), 前揭書, pp. 220~222.

30) 黃嗣永, 黃嗣永帛書, 43~44行; 崔奭佑(1982),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 35.에서 再引用.

교리와 전례를 자세히 알아보고, 세례를 청하여 받은 다음 교회서적과 聖物을 얻어 오도록 부탁하였다.<sup>31)</sup>

李承薰은 正租 8년(1784년 2월)에 예수회의 드·그라몽(Louis de Grammont)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 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르(Peter)라는 본명(本名, 즉 영명-靈名)을 받았다.<sup>32)</sup>

1784년 3월에 李承薰은 북경에서 얻은 서양 과학서와 과학기구 그리고 종교서적과 聖物을 갖고 귀국하였다. 특히 李檠은 많은 교리서들을 받아 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외딴 집에서 교리서 탐독과 조용한 묵상에 전념하였다. 李檠은 충분한 교리지식을 체득하고 신앙심을 강화한 후에 李承薰과 함께 선교활동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sup>33)</sup> 이렇게 李承薰(1756~1801)이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 베드로(Petrus)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귀국하는 계기로 포교를 개시함으로써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1785년 서울 명례동의 中人 金範禹집에서 조선의 천주교회는 정식으로 그 창립을 보게 된다.<sup>34)</sup> 이어서 천인계급·왕족에까지 전교함으로써 천주교의 대중화를 꾀하였으니, 여기에 한국천주교가 우리 나라 종교사상사에 차지하게 된 특성이 있고 교회창설 이후 100여년<sup>35)</sup> 동안에 천주교의 초현실적 신앙 내용인 천주의 인격성과 내세관인 靈魂不滅성과 天堂地獄說이 주자학의 정통사상을 부정하는 異端邪說이라는<sup>36)</sup> 이유로 네 번에 걸친 모진 대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 줄기찬 힘이 되었다.

31) 黃嗣永, 黃嗣永帛書 ; 김성태(1985), 前掲書, p. 222에서 再引用.

32) 柳洪烈(1994), 한국천주교회사, 上卷, p. 83.

33) 김성태(1985), 前掲書, p. 223.

34) 崔相龍(1979), 天主教 教育事業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6.

35) 柳洪烈(1980), 天主教의 韓國近代化運動, 「韓國社會思想史 論考」, 서울: 一潮閣, p. 312.

36) 김진소(1987), 天主教의 迫害要因, 「教會와 歷史」 第146號, p. 13.

한국천주교회는 초창기 몇 해 동안에는 교회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자들 가운데서 주교·신부를 세우는 가성직제(假聖事執行制度)<sup>37)</sup>를 써 왔으나, 성사집전이 망행임을 알게되자 李承薰등은<sup>38)</sup> 1789년 북경에 편지와 함께 밀사 尹有一을 북경교회에 보냄으로써 성직자의 파송을 간청하게 되었다.

尹有一은 1790년 2월 9일 북경에서 라자리스뜨회 로오(M. Raux) 신부로부터 바오로라는 본명(本名=洗禮名)으로 세례를 받고 주교의 편지를 權日身, 李承薰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 내용은 조선에서의 교회 창건 사업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가성직제를 엄히 꾸짖으며 주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 조선 교회는 주교의 명령에 따라 모든 聖務를 중지하였다.<sup>39)</sup>

그러나 신앙에 불타오르는 우리 교우들은 하루 빨리 교회 예식에 맞는 7聖事, 즉 聖洗, 堅振, 聖體, 告解, 終傅, 神品, 結婚의 儀式을 정식으로 받기를 안타까이 바라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신부를 조선에 보내주기를 탄원하기로 하였다.<sup>40)</sup>

마침 庚戌年(1790) 9월에 高宗 乾隆帝의 八旬節을 맞아<sup>41)</sup> 特別使行이 있어서 李承薰 등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선교사의 파견을 간청하는 편지와 함께 또다시 밀사를 파견하였다. 이에 구베아 북경 주교는 선교사의 파견을 쾌락하였다.<sup>42)</sup>

37) 聖事執典은 天主教會의 主教와 司祭(神父)인 聖職者들이 聖務를 완수하기 위하여 權限과 聖寵을 받는 聖事인 神品權을 받은 神父나 主教에 의해서만 行해질 수 있는데 당시 敎인들이 敎會制度를 알지 못하여 一般 信者가 聖事を 執典한 것을 말한다.

38) 崔奭佑(1987), 韓國天主教會의 創設, 「敎會와 歷史」, 第146号, 서울:韓國敎會史研究所, p. 10.

39) 柳洪烈(1994), 한국천주교회사(상), p. 94.

40) 上揭書, p. 94.

41) 朱明俊(1981), 天主教 信徒들의 西洋船舶請願, 「敎會史研究」, 第3輯, 韓國敎會史研究所, p. 55.

42) 崔奭佑(1987), 韓國天主教會의 創設, 前揭書, p. 10.



이로 인하여 북경 주교는 조선 교회와의 약속에 따라 다음해인 1791년 2월 마카오에서 자라난 중국인 신부 요안·도스·레메디오스(Johanne dos Remedios, 혹은 요안·우, Wou, 뭇라고 함)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조선의 극단적인 쇄국정책과 辛亥教難<sup>43)</sup>으로 비록 최초의 선교사의 입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1795년 1월 중국인 周文模 신부가 비밀리 서울에 들어오고, 이듬해 Portugal국왕 메리 2세에게 그 나라의 사신과 천문·의학에 밝은 신부를 보내어 양국간 수호조약을 맺고 전교의 권한을 얻도록 요청하였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고<sup>44)</sup> 1801년 국내에서 신앙운동이 표면화되자 조정에서 탄압정책(辛酉邪獄)을 써서 천주교 서적들은 불 살리었으며<sup>45)</sup>, 周文謨 신부는 300여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순교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이때 우리 교회는 전국 중에서 南方五道の 각지에 이미 굳은 뿌리를 뻗고 있었으며, 교우수는 자그만치 1만명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로마 시대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 ?~222 ?)가 “너희들(官憲)은 우리들(敎友)을 십자가에 걸고 고문하여 때려서 죽여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들은 효과를 더욱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교우들의 씨가 되느

43) 柳洪烈(1994), 한국천주교회사(上), p. 96.

조선말기 국가의 금교정책에 따라서 천주교민들이 탄압을 받았던 사건을 통칭하는 용어로는 邪獄, 迫害, 敎難, 窮難, 敎案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邪獄이란 용어에는 천주교의 탄압 주체였던 조선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며, 나머지 용어는 탄압을 받았던 교회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敎難이라는 용어는 사건의 결과 수백 명의 천주교민들이 피살됨으로써 교회측이 수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교회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敎案은 교회와 관련된 분쟁과 그로 인한 외교적 절충을 통칭하는 용어로 최초로 이 말이 사용된 것은 1616년 禮部侍郎西南京尙書인 沈雀의 공작으로 전개된 남경에서의 천주교 박해를 ‘南京敎案’이라고 연구자들이 표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01년의 제주의 사건(濟州敎案 또는 辛丑敎案)과 1903년의 황해도 사건(海西敎案)을 敎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4) 柳洪烈(1980), 天主教의 韓國近代化運動, 前掲書, pp. 316~317.

45) 崔相龍(1979), 前掲書, p. 6.

니라.”(Le sang Martyrs est une semence de Chretiens.)”고 한 護教論의 말씀의 실례를 그대로 우리 교회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46)</sup>

한국교회는 교회 창설 이래 35년동안 신부없이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게 신앙을 지켜오는 한편, 순교자 丁若鍾의 아들 丁夏祥(바오로)를 비롯한 김방지거, 유진길(아오스딩), 조신철(가롤로), 현석문(가롤로)등은 1816년부터 10여년 동안을 9차례나 북경교회를 방문하며 성직자 파송을 요청하였고, 로마교황에게 2차례나 서한을 보내어 두번째 서한이 1827년에 교황 레오 12世(Leo XII)의 손에 들어가, 조선교회의 서한을 받은 교황 및 교황청 布教聖省의 樞機卿<sup>47)</sup>들은 빠리 외방선교회로 하여금 “급속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선 교회의 정신적 곤궁을 구제하도록 하였고,<sup>48)</sup> 뒤이어 교황이 된 Gregorio 16세는 1831년 9월 9일 한국교회를 북경교구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조선교구를 설정하고, 파리 외방선교회의 Barthelemy Bruguiere 부주교를 조선교구의 초대주교로 선임 파견하였으나 1832년 4월에 태국을 출발하여 3년 동안 조선 입국의 길을 찾다가 만주에서 1835년 10월 객사하였다.

그후 丁夏祥(바오로)의 안내를 받아 파리 외방선교회 Piere Philibert Maubant(羅伯多祿)신부가 1836년 1월 입국하고 이듬해 1월에는 Jacques Honore Chastan(鄭牙各伯)신부, 동년 12월에는 2대주교 Laurent Marie Joseph Imbert(世亨)신부가 서울에 옴으로써 한국천주교회는 창설 53년 만에 비로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49)</sup> 한편 조선에 먼저 입국한 Maubant신부는 토착인의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46) 柳洪烈(1994), 한국천주교회사, 上卷, p. 118.

47) 樞機卿(Cardinal)은 聖職者 중에서 임명된 敎皇의 최고 顧問이며, 敎皇廳 각 要職과 세계 각 要地에 있다. 정원은 현재 135명이며, 敎皇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 神父들을 일컬음

48) 上揭書, pp. 242~243.

49) 柳洪烈(1980), 天主教의 韓國近代化運動, 前揭書, pp. 317~318.

金大建·崔良業·崔方濟를 1836년 12월에 Macao로 유학시켜 6년간 서양의 학술을 배우게 하였는데 그 사이 崔方濟는 1838년 열병으로 객사하였고, 조선에서는 1839년 己亥邪獄으로 Imbert주교등 세 사람의 프랑스 성직자와 200여명의 교인이 순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金大建은 1842년 2월 Macao를 떠나 귀국 길에 올랐으나 입국을 못하고 3년여를 만주 벌판을 헤매다가 1845년 1월 입국하여 서울의 처참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해 5월 다시 상해로 건너가 신품(神品)을 받고 조선교구의 3대 주교로 임명된 Jean Joseph Ferreol(高)주교와 Marie Antoine Nicolas Daveluy(安敦伊)신부를 모시고 귀국하여 전교에 힘쓰다가 이듬해 丙寅教案으로 10여명의 교우와 더불어 순교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입국한 두 외국 신부는 다행히 박해를 면하고 숨어서 전교를 하다가 辛酉教案때 순교한 宋마리아 친손인 哲宗의 즉위로 약 14년간 천주교는 크게 발전하여 전국의 신자가 2만3천여명을 헤아리고 프랑스 성직자도 Simon Francis Berneux(張敬一)주교 이하 12名이나 있게 되었다.<sup>50)</sup>

한국 천주교회는 창설 이래 1백여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게되고 일만여 순교자를 내게되어 박해와 고난의 역사로서 특징이 있었으며 위험, 용단, 인내와 끈기 있는 선교사들과 신자들의 순교<sup>51)</sup> 결과로 103位 福者가 탄생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983년 9월 27일 교황 John Paul 2세는 福者들을 드디어 聖人品<sup>52)</sup>에 올리도록 확정하고 전 세계에 공포하였던 것이다.<sup>53)</sup> 이와 같이 한국천주교회는 최대의 찬양

50) 上揭書, p. 318.

51) 金良善(1971),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基督教文化史, p. 33.

52) 知慧와 德望이 뛰어난 사람, 또는 教會의 發展을 위해 獻身한 사람이 죽은 후 聖人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聖人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聖人品이란 敎皇이 審査委員會의 最終 결정을 보고 確定하여 公布하고 聖人으로 推戴하는 盛大한 禮式을 舉行하는 것을 말한다.

53) 黃興福(1983), 韓國天主敎會信者教育에 관한 史的 考察,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2.

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高宗 19년(1882) 한미통상조약을 계기로 천주교의 금압책은 완화되었고 이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여 천주교가 마련해 놓은 피의 반석위에 병원, 학교, 교회등을 무수히 건설할 수 있었다.<sup>54)</sup> 이와 같이 천주교의 한국 전래는 100여 년간의 박해와 순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의한 교육사업의 특징 또한 한국 교육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로서 조선의 천주교 수용과정에서 두 가지 커다란 특색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가 천주교를 신앙의 종교로서 보다는 우선 1세기 이상 한역의 서학서에 의한 문헌의 이론적 연구와 비판을 거쳐 수용했다는 점이며<sup>55)</sup> 둘째는 서양 성직자의 전 교없이 오로지 우리 학자들의 자발적인 연구 결과로 성립되게 된 것으로 이것은 세계 선교사상(宣敎史上)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sup>56)</sup>



---

54) 金良善(1971), 前掲書, p. 33.

55) 崔相龍(1979), 前掲書, pp. 5~6.

56) 金良善(1971), 前掲書, p. 32.

### Ⅲ. 天主教의 濟州島 傳來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유입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대개 1899년에는 선교사들이 제주에 입도하여 전교한 기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Mgr. Mutel(閔德孝)주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도 드물게 이 섬에 몇몇의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1866年 전에 몇몇의 信者들이 이 섬에 살았었다. 그러나 M. Peynet(뻬이네)神父가 1899年 5월에 처음으로 이 섬에 선교사로 갔을 때는 그들에 대한 흔적이나 자취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sup>57)</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제주도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천주교와 접촉하게 된 사람은 金福壽였다. 그는 임진왜란(1592~1598) 때에 안남국에 표착하였다가, 그곳에서 일본 사신을 만나 日本의 오사카 성(大阪城)으로 가서 仇羅婆旺의 사신을 만나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교(伎俐敎)를 믿음과 교리책(方書) 및 기도문 책(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 다행히 배편을 얻어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었다.<sup>58)</sup>

그리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영세한 사람은 김기량(펠릭스·베드루)이었다. 그는 1856년에 풍랑을 만나 중국의 광둥 지방까지 떠내려가던 중 같이 배를 탔던 5명의 친구를 잃고 다행히 영국 배에 구제되

57) 金玉姬(1987),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耽羅文化」, 第6號, p. 146에서 再引用

58) 金錫翼(1954), 附奇聞傳說條, 「增補耽羅誌」, 淡水契, p. 280.

어 홍콩에 있던 외방전교회 신부덕으로 넘겨졌었다. 그는 그곳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었던 조선인 폐낭 유학생을 만나 이의 가르침을 받고 영세한 후 1858년에는 서울로 돌아왔다가 많은 교리책을 얻어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그 가족 20명과 여러 뱃사공들도 입교케 하고 1860년 성탄 때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뱃사공 高·베드로를 영세케 하였으며, 丙寅教案 후에도 2명의 영세자를 데리고 서울까지 온 일이 있었다.<sup>59)</sup>

이러한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분명히 제주도에 1866년 이전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선 조선시대 많은 천주교인들이 邪學罪人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살았던 기록과 이야기가 전해져 제주도민의 천주교 접촉은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丁蘭珠(教名:마리아)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丁蘭珠는 丁若鉉의 딸로서 19세에 黃嗣永(알렉산델)과 혼인을 하였고 열심히 천주교를 믿다가 1801년 辛酉教案으로 黃嗣永의 帛書 사건이 발각되어 남편이 戮屍刑으로 참혹하게 새남터에서 순교하자, 그의 모친은 거제도로 유배되고 아내인 丁蘭珠와 아들 黃景憲은 제주로 유배되어 오던 중 추자에 가까이 왔을 때 뱃사공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린 아들을 살릴 일념으로 애원하여 뱃사공은 나졸 두 명에게 술을 먹여 허락을 받고 추자도 예초리 서남단 물산리 언덕에 어린애를 내려놓았고 관가에는 黃嗣永의 어린 아들 景憲은 죽어서 수장하였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鄭蘭珠는 1801년 동짓달 중순에 화북포구에 도착하여 대정군 원청에 인계되어 金錫九 집에서 관비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丁蘭珠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아 제주

---

59) 柳洪烈(1998), 韓國天主教會史, 下卷, p. 362.

에서 당시 천주교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료(史料)가 전무(全無)하여 알아볼 수가 없다.

제주도에 본격적인 천주교 전파는 1898년경에 제주도 중문면 색달리에 거주하는 양 베드로라는 사람이 육지에 머물러 있을 때 영세입교하여 열심히 수계하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 신 아오스딩과 신 바오로(1901년에 순교) 형제와 대정읍 보성리 金생원과 강 도비아에게 전교하였다 한다.<sup>60)</sup>

양 베드로는 한국교회의 최초의 영세자 李承薰 베드로처럼 그는 제주도의 최초의 사도 베드로로 1년 전 육지에서 영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전교함으로써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이 되었다. 처음 양 베드로가 입교시킨 위의 네 사람이 열심히 수계하여 牧者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당시의 교구장이었던 Mutel주교에게 열심히 이곳에 선교사를 파견하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Mutel주교는 이에 응하여 마침내 다음 해 선교사 Peynet신부와 한국인 金元永(아우구스티노)신부<sup>61)</sup>를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하였던 것이다.<sup>62)</sup>

양 베드로의 이야기는 1899년 7월 27일 金元永(아우구스티노)신부가 Mutel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本堂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法令 때문에 牧使(朴用元)가 불쾌해 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 집이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 베드로는 즉시 내보냈고 이 라우렌시오는 요즘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60) 金玉姬(1987),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耽羅文化」, 第6號, pp. 149~150.

61) 金元永(아우구스티노)神父(1869~1936): 1899年 5月 26日 제주도에 부임한 이래 페네(Peynet, 裴嘉祿)神父와 함께 傳敎활동을 하였고, 1900年 6月 12日에는 旌義郡 한논(大畚- 지금의 西歸浦市 西烘洞) 本堂을 設立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傳敎하다 1901年 4月 제주를 떠났다.

62) 崔善弘(1933), 濟州島의 虐殺事件과 本堂沿革, 「가톨릭研究」, 9,10月號.

人間 體面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이 페네신부님<sup>63)</sup>에게 領洗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본 문답(四本問答)<sup>64)</sup>과 조만과(早晚課)<sup>65)</sup>등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領洗를 청했을 때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sup>66)</sup>

外教人들 중에 天主教를 배우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감히 먼저 나서서 배우려는 사람은 이 邑內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좌수라는 사람이 문답(問答)과 십이단(十二端)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 天主教 책들을 판 일이 없으므로 처음엔 이상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韓家라는 한 流配者로부터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좌수 반도에게 房星必<sup>67)</sup>의 소요 때 하인을 통해 宗教 書籍을 주었습니다.<sup>68)</sup>

이렇게 제주도에도 한국의 천주교 전래와 마찬가지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성장해 왔음을 당시 제주에 파견되어온 선교사들의 서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黃玆의 「梅泉野錄」에 이 지방은 높은 벼슬을 지내던 사람들이 죄로 몰리어 귀양(歸鄉)가는 곳으로도 이름나 있었는데, 이러한 귀양살이 정객들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던 끝에 聖敎로 나오게 되었다. 특히 나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던 불란서 신부

63) 페네 신부는 1873年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파리 외방선교회에 입회하여 1897年에 司祭로 서품, 朝鮮 宣敎師로 임명되어 1899年 5月 26日 濟州에 도착하여 宣敎活動을 하다 1900年 5月 4日 全北 水流 本堂으로 전임되었고, 후임으로 라쿠르(Lacrouts, 宛瑪瑟)神父가 부임하였다.

64) 敎理問答 중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네 가지 問答(領洗, 告解, 聖體, 堅振問答)을 말한다.

65) 聖務日禱의 아침·저녁 祈禱와는 별도로, 아침과 저녁에 바치던 早課와 晚課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

66)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4집, 「초기분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51.

67) 房星七의 오기로, 房星七은 1898年 大靜郡에서 일어났던 무술민란(戊戌民亂)의 우두머리였음

68)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4집, 「초기분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55.



들이 1899년 이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니, 눈치 빠른 도민 또는 귀양살이 죄인들 중에는 이 신부들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었으므로 교우 및 예비 교우의 수는 날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귀양살이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聖敎로 나온 사람은 弘文館 校理를 지내던 李容鎬이었는데, 그의 뒤를 따라 위원(渭原) 군수이던 李範疇, 崔亨淳(요한), 감찰이던 張允善 같은 귀양살이 죄인들도 입교하게 되었다.<sup>69)</sup> 이것은 육지에서 불우한 남인 학자들이 먼저 天主教를 믿기 시작한 사실과도 비슷한 일이었다.

제주도에 최초의 본당 설립은 1899년 7월 27일 제주도 대로동으로 발신지가 되어있는 金元永(아우구스티노)신부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듬해인 1900년 6월 10일자 서한에 한논(大畚)본당이 설립되어 제주성 내에서 정의(한논)지역으로 천주교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천주교는 라쿠르(Lacrouts, 具瑪瑟)신부<sup>70)</sup>가 부임하면서 교세의 확장은 물론이고 신자수가 눈부시게 많아지고 있음을 그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豫備者들 때문에 다른 사랑채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두세 번 들었습니다. 현재의 사랑은 기와집 끝에 있는데 이 건물의 9칸은 聖堂으로 쓰고 2칸은 사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聖堂은 올해 안으로 너무 비좁아질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저는 聖堂을 넓히기 위해 사랑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sup>71)</sup>

69) 黃玼(1902), 梅泉野錄, 卷之3, 光武 5年 辛丑 夏 4月條 ; 柳洪烈(1998), “韓國天主教會史”, 下卷, p. 363.에서 再引用.

70) 라쿠르(Lacrouts, 具瑪瑟)신부는 1871年 5月 8日 프랑스 바욘느(Bayonne)교구의 보르드(Bordes)에서 태어나, 1890年 9月 16日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으며 1894年 7月 1日 司祭로 敍品되었고, 同年 10月 23日 韓國에 도착하여 全羅道에서 5年동안 韓國語를 배우고 1900年 5月에 濟州島에 派遣되었다.

71)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上揭書 第3輯, 「초기

이후 제주에는 1901년 5월에 辛丑教案<sup>72)</sup>이 일어나 당시 성세자 2백 42명, 예비자 700여명 중 7백여명이 순교하였고, 40명은 목포로 건너갔다가 교안이 가라앉은 후 돌아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안은 단지 제주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세에 어둡고 무능하며 썩어 빠졌던 대한 정부가 그 스스로의 무력함을 폭로한 사실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 사건의 뒤를 이어 전국 각처에서 여러 차례의 교안이 유생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는데, 이는 모두 당시 신문의 논설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듯이, 법률이 불충분하고 관리가 썩어 빠진데 그 원인이 있었다. 辛丑教案은 원시적이며 봉건적이던 우리 나라가 근대화하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적인 고민의 모습을 그려낸 사건이라 볼 수 있다.<sup>73)</sup>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라크루(具瑪瑟)신부와 무세(G.Mouss-et, 文濟萬)신부<sup>74)</sup>에 의해 교안 후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지역의 선교에 진념하여, 교회는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00여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난 오늘에 천주교의 신자(領洗者)가 제주 인구의 8.6%에 해당하는 4만 7천여명에 이르러 당시 순교자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33.

72) 1901年 5月 5日(陰曆 3月 18日) 大靜郡 郡民들이 敎人들을 侵奪하기 시작하여 5月 28日 濟州城 内の 敎人들이 殺害되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 함대가 濟州에 도착하여 당시 濟州牧使인 李在護와 屍身埋葬에 대한 합의를 하고, 찰리사 黃耆淵과 라쿠루 神父가 ‘敎民 和議 約定’을 체결하고 主謀者들을 絞首刑에 처한 사건을 일컬음. 이에 대해서는 朴贊植(1985), 韓末 天主敎會와 鄉村社會, 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참조

73) 柳洪烈(1998), 韓國天主敎會史, 下卷, p. 423.

74) 무세(G. Mousset, 文濟萬; 1876~1957)神父는 1896年 9月 19日 프랑스 로이르(Loire)大敎區의 생 랑벨(St. Rambert)에서 태어나 1895年 9月 파리 外邦傳敎會 神學校에 入學하였고, 1900年 6月 22日 卒業과 同時에 司祭로 敍品되었으며, 같은 해 10月 9日 韓國에 入國하였다. 이후 그는 1901年 4月 27日 濟州道로 임명되었고, 5月 10日 濟州道에 부임하여 한눈 本堂의 제2대 주임을 맡았으나, 이미 진행되어 온 辛丑教案으로 인해 40名의 敎友들과 木浦로 피신하였다가 10月 末 境 歸還하여 황폐해진 한눈 本堂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중 1902年 4月 20日 馬山 本堂의 제2대 주임으로 전임되었다.

## IV. 天主教의 教育事業

### 1. 舊韓末의 教育環境

한국천주교는 종교생활에서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나라의 근대화와 특히 교육활동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공적을 쌓았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박해시대에 서구교학 수용에 선협적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말, 일제시대에 차별하게 서민대중들을 위한 학교를 전국 각지서 운영하여 민중계몽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해방 후 팽배하는 교육열에 발맞추어 보통교육에서 특수교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을 길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주교의 전교자유는 1882년 韓·美通商友好條約에서 서양인에 대하여 서울은 물론 부산, 인천, 원산 등의 항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숨어 지내던 프랑스 성직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sup>75)</sup> 그후 미국인 데니의 중개로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조약이 1886년 음력 5월 3일에 체결되었다. 이 韓仏條約에서는 완전한 전교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인에 한해서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특히 프랑스인 들이 통상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인천, 원산, 부산, 양화진을 왕래할 때에는 조선 정부가 護照를 내주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sup>76)</sup> 규정에 따라 파리의방전교회 성직자들은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통상이

75) 劉洪烈(1975), 前掲書, p. 257.

76) 上掲書, pp. 266~267.

허락된 지방에서는 박해로 인하여 중단된<sup>77)</sup> 교육사업에도 손길을 뻗  
치기 시작한다.<sup>78)</sup>

더불어 정부에서는 1895년 1월 7일 高宗이 한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洪範 14條를 선포했는데, 제 11 條에 “國中の 聰明한 子  
弟를 널리 派遣하여서 外國의 學術과 技藝를 傳習시킨다.”고 하여 서  
양의 근대교육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1895  
년 2월에 전국민에게 교육입국의 조서를 내려 근대적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즉

……世界的 形勢를 두루 살펴 보건대, 富하고 強하며 獨立하여 雄視하는 모든 나  
라는 다 國民의 知識이 開明하였다. 이 知識의 開明은 教育의 善美로 되었으니, 教  
育은 실로 國家를 保存하는 根本이다.…… 이제 朕이 教育의 綱領을 보이니, 헛 이  
름을 물리치고 實用을 취하도록 하여라.<sup>79)</sup>

이 「教育立國詔書」에 담겨져 있는 이념은, 첫째로 교육은 국가  
보전의 근본이며, 둘째로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학문과 실용을 추  
구하는데 있고, 셋째로 교육의 삼대기강으로서 덕육, 체육, 지육이 있  
음을 들었다. 그리고 넷째로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광설(廣  
設)하고 인재를 교육함이 곧 민족중흥과 국가보전에 직결되는 사실  
임을 밝혔다.<sup>80)</sup>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근대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저 서양기술을 습득하고 그 방법으로 해외유학

---

77) 김혜선(1989), 개화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6.

78) 李元勇(1992), 前揭書, p. 35.

79) 官報 1895年(開國504) 2月 20日字 教育詔勅 및 增補文獻備考, 卷之 209, 學校考 8.; 孫仁銖(1983), 韓國近代民族教育의 理念研究, 서울: 文音社, p. 43에서 再引用

80) 上揭書, pp. 42~43.

생만을 파견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고 일반 민중들도 자녀들을 근대적 교육방법에 의하여 가르쳐야겠다는 의식이 싹트지 않았다.<sup>81)</sup>

## 2. 濟州島에서의 天主教 教育 事業

### 1) 濟州의 近代教育

제주도 근대교육의 출발은 1906년 8월 尹元求가 제주군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伊藤 統監의 “시정개선”명목 때문에 조선정부가 일본 은행에서 도입한 교육차관 5백만원 가운데 8천원을 학부에서 할애 받아 제주목의 객사였던 영주관을 개축하여 1907년 1월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설립, 개교하고 관덕정에서 백일장을 주재하여 입학생들을 선발, 연소자를 입학시킨다. 이어 1907년 7월에는 굴림서원 자리에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를 설립, 개교하고 백일장에서 선발된 연장자들을 입학시킨다<sup>82)</sup>. 이로써 제주도 근대교육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본격적인 출발을 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근대교육의 출발은 그것을 가능케 한 근대교육행정 조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조선의 근대교육행정 기관인 학무아문이 1894년에 설립되었고 1895년 2월에는 근대교육의 이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한 「教育立國詔書」가 발표되었는가 하면 4월에는 내각관제의 공포에 따라 학무아문을 대신하여 학부가 발족된 후 각종 근대 학교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침략적인 교육정책을 노골화시키는데, 즉 1904년 「韓日外國

81) 金鎬逸(1980), 韓國 近代教育의 成立, 「韓國史學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史學研究室, p. 46.

82)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濟州教育史」, pp. 29~31.

人顧問僱聘에 관한 協定」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일본인 幣原坦을 學部 學政 參與官으로 파견하여<sup>83)</sup>, 정미 7조약을 강요하며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을 시작하는가 하면, 1905년에는 參與官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학부를 관리하는 학부차관 제도를 만들어 조선의 교육행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연계되어 제주도 근대교육도 출발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근대교육의 출발점은 1907년이 된다. 그런데 한국인 김원영 신부와 프랑스인 라쿠르 신부가 제주도에 부임한 것이 1900년 6월이었고 특히 제주목에 부임한 라쿠르 신부가 본격적인 근대교육사업을 펼친 것이 1909년을 전후한 시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교육사업은 필히 제주군수 尹元求의 근대학교 설립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라쿠르 신부에 의해 근대교육사업으로 1909년 晨星女學校가 개교되기 훨씬 전부터 교리문답을 위한 주일학교 수준의 소규모 학당이 운영되었던 점 때문이다.

라쿠르 신부의 1903년 3월 12일자 서한에 의하면 제주에는 일본인<sup>84)</sup>에 의하여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잠시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곧 폐쇄되었고, 1903년 10월 2일 서한에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 사직을 하고 제 집주인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sup>85)</sup>

83) 孫仁鍊(1983), 前掲書, p. 46.

84) 濟州教育史, P. 28에는 「1903년 봄 木浦에서 原某教師가 島民을 啓蒙하는 것이 教育의 捷徑임을 착안, 本島에 들어와 日語學堂을 일으켜 子弟教育에 힘썼다. 그 때의 牧使 洪鍾宇는 天主教를 깊이 믿어 日本人들의 참여를 마땅치 못하게 생각하여 紛爭을 일으키자 木浦領事館은 原教師를 召還하였고 그의 이름은 原吉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85)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3집,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175.

라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1903년에는 천주교에 의한 학교가 설립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라쿠르 신부가 晨星女學校를 설립하기 6~7년전에 이미 女學校를 설립하였다는 말이 되며 晨星女學校는 그 여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이야 어떻든 여학교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것이 비록 비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아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sup>86)</sup>

다시 말해 주일학교 수준의 소규모 학당을 운영하며 평소 이 학교의 확대를 바라던 차에 尹元求의 근대학교 설립사업으로 자극을 받아 본격적으로 근대교육사업을 펼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다.

또한 1908년 9월 24일자 뮈텔 주교에게 보낸 타케(Taquet, 嚴宅基)<sup>87)</sup>신부의 서한에



「마침내 저희들은 學校도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 日本人, 韓國人의 프로테스탄트 信者들과 異教徒들 할 것 없이 모두들 學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뒤쳐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만 勸當할 能力이 있을 것이며 저희들에게 뒤쳐졌다고 非難하는 이들에게 應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濟州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信者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女學校를 세워 學生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贖金도 부족하여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sup>88)</sup>

86) 梁鎭健(1997), 前掲書, P. 426.

87) 그는 프랑스 루르드에서 태어나 1897년 파리 외방전교회를 졸업함과 동시에 10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8년 1월 5일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고, 1902년 4월 20일 무세 신부와 본당을 맞바꾸고 제주 한논 본당의 제3대 주임으로 부임함

88)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제주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4집,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제주교구, 1997, pp. 153~155.

라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제주도 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계의 여학교가 정확히 어떤 학교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왜냐하면 당시의 각종 학교설립에 따른 정부나 제주도 관계 자료에는 프로테스탄트계 여학교 역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소위 개화기라 불리는 시기에 제주도에 개설된 학교를 보면 개량서당 수준의 개성학숙, 신명사숙, 진영사숙, 의명학교 등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테스탄트계 여학교라고 지목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다.<sup>89)</sup>

이로써 보건대 晨星女學校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학생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육지부에서 정치상 그 밖의 이유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과 유배온 정객·학자들이 많아 서민의 자제교육에 전념하였기 때문에<sup>90)</sup> 이러한 인물들에 의한 서당을 중심으로 교육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천주교는 제주도에서의 근대교육사업으로 여성교육 쪽을 택했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晨星女學校인 것이다.

## 2) 晨星女學校의 設立

### (1) 開 校

신교육 초기에 설립된 종교계 학교는 모두 선교사업의 기초공작 또는 그 부대활동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만큼, 이들 학교의 교육목적이 기독교적 인물을 기르는 동시에 선교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sup>91)</sup>

89) 梁鎭健(1997), 前掲書, p. 426.

90) 朴來鳳(1984), 日帝 統治下の 書堂 教育의 實態 -濟州島 I-, 「韓國教育史學」, 合本 2號中 第6輯,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所, p. 103.



그러므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육사업을 행하였던 것이다. 1938년 李中輔는,

朝鮮에는 天主教眞理가 들어온 지도 一半世紀이라는 長久한 歲月이 흘렀지만 酷毒한 迫害로 말미암아 극도로 衰弱하여졌던 관계로 信敎自由를 얻은 후로도 急速發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信敎自由를 얻은 후 즉시 傳來된 프로테스탄은 都會各地에 敎育機關을 設하고 蒙昧한 자들을 敎育하며 방방곡곡에서 猛烈하게 활동한 결과 加速度의 發展을 보게되어 現今 朝鮮 各地에는 예수의 聖名을 모르는 자가 全無하리 만치 전과되었다.<sup>92)</sup>

라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사업과 교회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천주교회도 교회발전을 목적으로<sup>93)</sup> 교육사업을 펼치려고 노력하였음을 소급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09년에 설립된 晨星女學校는 우리 후세에 당시의 교육 실정을 말해주는 가장 충실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제주도에 천주교에 의한 학교의 설립 추진은 1909년 晨星女學校가 설립되기 1년전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계획되고 있었음을 1908년 9월 24일자 워털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에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하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sup>94)</sup>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사회적 실정에 맞는 여학교 교육이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자 뒤늦게 여아들을 위한

---

91) 吳天錫(1975), 新敎育의 發端, 「韓國新敎育史(上)」, 吳天錫敎育思想文集(5), 서울:光明出版社, p. 61.

92) 李中輔(1938), 「가톨릭朝鮮」, 9,10月號 ; 盧榮澤(1982), 日帝下 韓國天主教의 敎育事業研究(1), 「韓國敎會史論叢」, 韓國敎會史研究所, p. 418.에서 再引用

93) 上揭書, pp. 418~419.

94)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 153.

교육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라쿠르 신부의 여학교 설립 계획은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은 개신교의 梨花學堂처럼 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로 같은 학교 내에 여학교와 남학교를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제주도의 경우 여학교를 독립적으로 세우고자 했던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라쿠르 신부는 기회가 닿는 대로 남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러한 절차야말로 가톨릭 교육운동의 전형적인 수순이었다.

이러한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朴永孝였다.<sup>95)</sup>

朴永孝<sup>96)</sup>의 도움에 대해 라쿠르 신부는

「관대한 한 분의 自發的인 協力 덕분에 濟州에 女學校 設立의 가능성은 더 이상 空想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主教님께 전하고, 동시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女學校를 管理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리자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sup>97)</sup>

라고 뫼텔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 밝히고 있다.

95) 梁鎮健(1997), 前掲書, p. 428.

96) 朴永孝(1861~1939)는 한말의 정치가이며, 수원 출생으로 판서 박원양의 아들로 13세 때 철종의 딸 영혜옹주와 결혼하여 금릉위가 되고 유대치를 중심으로 개화당 요인들과 결속, 정치적 혁신을 주창하며,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청나라의 간섭과 러시아의 침투를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1882년 修信使에 임명되어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으나 민태호등 수구파의 집권으로 실패하였다. 이에 개화당 요인들과 협의,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청사의 낙성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3일천하에 그쳐 역적으로 몰려 이봉으로 망명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죄가 용서되어 귀국, 제2차 김홍집 내각에서 재차 자주적 개혁을 꾀하였으나 1895년 반역음모사건으로 일본으로 망명하여 1907년 국내의 정치적 변동으로 귀국하였으나, 고종 양위에 앞장선 대신 암살 혐의죄로 1년간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 제주의 근대 교육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97)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회, 前掲書 第3輯,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천주교제주교구, 1997, p. 231.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의지를 부추긴 데는 제주도 여학교의 영향도 있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경쟁 관계라 할 수 있는 개신교의 영향도 컸음은 앞서 밝힌 타케 신부의 1908년 9월 24일자 워털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곳 濟州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信者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女學校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sup>98)</sup>

라는 편지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당시 개신교는 정부의 근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정열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의식이 라쿠르 신부와 같은 가톨릭 선교사들을 자극하였던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교와 함께 교육사업에 착안하여 제주도에 처음으로 신식학교인 晨星學園(1909年 10月 18日 許可)을 세워 도민교육에 힘썼으며 1910년경에 샬트르 성 바오로회의 수녀들까지 초빙하여 교육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다.<sup>99)</sup>

이 당시 晨星女學校의 개교는 한국가톨릭교육사는 물론 한국교육사에서 의미있는 학교 설립이었다. 개신교의 일반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던 광범위한 교육운동에 비할 바는 못되었지만 당시 가톨릭의 교육운동은 한국교육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이었던 1855年 忠北 제천의 베론신학당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晨星女學校의 개교 또한 그러한 계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내에서도 晨星女學校의 설립과 운영은 대구대목구(敎區)내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8) 上揭書 第4輯, 「초기본당 성직자들의 서한(2)」, p. 155.

99) 金玉姬(1987), 前揭書, p. 177.

당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대구, 제주 두 곳이었는데 1905년 乙巳條約 이후 한국이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설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육사업에 관한 한 개신교에 비해 가톨릭은 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晨星女學校의 성공은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다.<sup>100)</sup>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朝鮮人 修女들이 맡고 있는 女子 學校들은 그 學校가 세워진 곳마다, 비단 敎友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外教人들로부터도 대단한 好評을 받고 있습니다. 學生들이 그들의 女先生에게 지니는 애정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종류의 學校가 敎區 내에 두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大邱에 있고, 다른 하나는 濟州島에 있습니다. 두 學校가 다 가까운 장래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sup>101)</sup>

라는 드망즈 주교의 1913년도 보고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이다.

당시 대구교구 내에 설립되었던 여러 학교들 가운데 대구와 제주 이외의 학교들을 드망즈 주교는 “아무 곳에서나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학교”<sup>102)</sup>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베르모렐(Vermorel, 睦) 신부는 “정식학교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sup>103)</sup> 학교라고 비하하여 표현할 만큼 대구 교구 내에서도 晨星女學校는 상대적으로 교육적 성공이 주목되는 학교였다.

100) 梁鎮健(1997), 前掲書, p. 430.

101)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천주교부산구사자료집 제1집, 『敎區年報(1878-1940)』, 부산교구, 1984, p. 41.

102) 上掲書, p. 49.

103) 上掲書, p. 49.

## (2) 教育內容과 學生

晨星女學校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분명치 않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허요안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한문, 일어, 국문, 산술, 수신 5개 과목이었다.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은 여성교육의 범위를 기초교육의 범주에 제한시키고자 했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목으로 국문, 한문, 산술, 역사, 지리 등을 제시하면서도 여성은 실제 생업에 필요한 청소, 세탁, 유아교육법, 비단 짜는 일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sup>104)</sup>하였는데 천주교 선교사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여성교육관은 晨星女學校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쿠르 신부의 편지에 초창기 모집 학생들 가운데 「20歲가 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에 시작했던 한자 공부를 끝마치기를 바랄 것입니다.」<sup>105)</sup>라는 것으로 보아 한문은 초창기부터 교육과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르쳐졌음을 알 수 있다. 晨星女學校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정부 또한 관심을 갖고 교과서 공급을 약속<sup>106)</sup>했던 모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의 초등교육 교과목으로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리, 역사, 이과, 도화, 체조, 수예에다 시의(時宜)에 따라 창가, 수공, 농업, 상업 중 한 과목이나 몇 과목을 더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의 교과서 공급이 약속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교과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드망즈 주교의 1912년 보고서에

「教會로 사용되는 아주 작은 방에서 오르간에 맞춰 소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 그들 學校의 60名の 學生들 중 대부분은 敎理問答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104) 『경향신문』, 1908年 6月 12日 ; 梁鎭健(1997), 前掲書, p. 438.에서 再引用.

105)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33.

10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67.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sup>107)</sup>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晨星女學校 학생들에게 교리문답과 함께 노래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학생 모집에 대해 崔貞淑(베아트릭스)의 회고에 의하면

「濟州島에 처음으로 구마셀로 신부<sup>108)</sup>가 女學校를 세워 아버지인 최원순 검사와 같이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딸들을 보내주도록 간청했고 서울에서 수녀 두분을 초빙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학생들을 모집, 教科書와 學用品을 無料로 나누어주면서 공부를 시켰다.」<sup>109)</sup>

고 하여 개별 방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모인 학생수가 1910년 5월경에는 40명에 이르게 된다.<sup>110)</sup>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40여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일본인 여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던 상황에서 유지되던 인원이란 점이다. 일본인 여학교로 빠져나갔던 학생 7명 가운데 1명은 되돌아 왔는가 하면 당시 일본인 여학교의 재학생 수가 25명이었다<sup>111)</sup>는 점에 비추어 볼 때 晨星女學校의 인지도가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주도에는 1903년에 학당 수준의 여학교가 있었고, 그런가하면 1908년에는 개신교계의 여학교가 역시 활동을 했고 1909년 晨星女學校가 개교를 했으며, 1910년에는 일본인 학교에 25명의 여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반으로

107) 『教區年報(1878-1940)』, p. 27.

108) 구마셀로 신부는 라쿠르(Lacrouts, 具瑪瑟)神父를 말함.

109)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3년 9월 17일 6면.

11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49.

111) 上揭書, p. 249.

제주도의 여자교육이 적어도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교육론이 온 국민의 관심 아래 가장 고조된 것은 1905~1910년경이었고 이 시기에 京外에서 유지들이 사재를 取勘하여 200여개의 여학교를 설립 운영<sup>112)</sup>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제주도 역시 그러한 여성교육론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崔貞淑<sup>113)</sup>은

“나는 부친의 손에 이끌리어 佛國人 구마셀로 神父가 사재로 세운 晨星女學校에 8세때 입학했다.”<sup>114)</sup>

라고 회고한 것을 보더라도 분명 晨星女學校의 성격은 초등교육 수준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제주도 초등교육이라는 맥락에서 晨星女學校는 조망되어야 한다. 晨星女學校에 관한 대개의 언급이 중등교육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晨星學校를 염두에 둔 탓으로 보이며 晨星女學校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등과정 보다는 초등과정에 대한 언급이 우선이라고 하겠다.<sup>115)</sup>

라쿠르 신부는 1910년 10월 17일자 보고서에

112) 朴容玉, 『韓國近代女性運動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45.

113) 崔貞淑(1902~1972)은 제주시에서 태어나 신성여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경성시립진명여고(1915. 9~1918. 3)와 경성관립여자보통학교 사범과(1918. 4~1919. 3)에 진학하여 제주, 목포, 전주 등지에서 1920년부터 1938년까지 교사로 재직하다가, 1919년 3. 1 운동참가로 감옥에서 얻은 신병이 재발하여 이를 계기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9. 3~1943. 9)를 나와 의사로서 인술을 펴던중 1946년 스위니(Sweeney)神父와 함께 신성여학교를 다시 일으키면서 경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교직의 일부도 맡아 제주의 여성교육 발전에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1964년에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자 전국 유일의 여성 교육감으로 피선되어 제주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인물임

114)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3년 9월 17일 6면.

115) 梁鎮健(1997), 前掲書, p. 435.

「濟州郡에 있는 샬트르 성바로 修女院 소속의 여학교에는 50名の 學生이 있습니다. 修女님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말고도 어린 異教徒들이 學校를 자주 찾아와 신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학교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제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 저는 異教徒들이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에게는 여전히 무척 많은 異敎思想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어린애들은 신자가 되기도 전에 그녀들 사이에 天主教의 淸 敎育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교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sup>116)</sup>

라는 서신 내용에서, 당시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속적인 풍습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뽀텔 주교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00년과 1903년 보고서

「濟州島에서 부딪히는 아주 유별난 敎의 장애는 원주민의 半野蠻的인 성격과 문란한 풍습입니다.」<sup>117)</sup>

「半野蠻的인 관습과 도덕관념이 희박한 이 섬사람들을 참된 신자로 만든다는 것은 특별히 힘든 일입니다.」<sup>118)</sup>

에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에 관심이 없거나 설혹 반대하는 외교인들이 자식들을 천주교 학교에 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외교인들이 천주교 학교에 자식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이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시 晨星女學校 명성은 공립학교를 능가하는

116)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53.

117) 『敎區年報(1878-1940)』, p. 351.

118) 『敎區年報(1878-1940)』, p. 364.



것이였다. 그러기에 晨星女學校를 보존하기 위해 애썼던 金洋洪(스테파노) 신부는

「이 학교는 현재까지 좋은 名聲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邑內의 外敎人들도 거의 모두가 그들의 딸들을 공립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sup>119)</sup>

라고 하였다.

학교의 명성은 다른 누구보다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여들게 된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晨星女學校의 “명성”을 시샘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學校에 대한 악의는 남녀 학교들의 교감의 소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日本人은 아마도 조금 질투했나 본데, 그에게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 관리의 타고난 습관적인 과립치한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견지에서는 그가 옳았던 게지요.」<sup>120)</sup>

라는 라쿠르 신부의 1910년 6월 10일자 편지를 보면 일본인 교감의 소행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 관리의 조종으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晨星女學校의 명성이 그만큼 컸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濟州에 있는 公立學校에는 學生이 400名 이상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저를 무척 보러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방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物資들을 갖고 있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해 아직도 200 내지 250円과 다른 물건들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게는 한푼도 없으니 이런 방을 가질 수 있다면

119) 『초기본당과 공직자들의 서한(2)』, p. 163.

120)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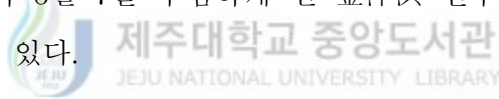
저는 일년 내내 禁酒하고 禁肉할 것입니다.”<sup>121)</sup>

라는 편지 내용에서 라쿠르 신부는 기회만 된다면 남·여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보고자 했던 마음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1914년도의 보고서에

「그들(大邱와 濟州島) 학교의 학생 수는 前者가 33名, 後者는 22名이 증가하였습니다.」<sup>122)</sup>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학생수의 증가추세는 꾸준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 6월 라쿠르 신부가 전주로 옮기게 되면서 晨星女學校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학생수가 69명이며, 라쿠르 신부의 뒤를 이어 6월 7일 부임하게 된 金洋洪 신부에 의하면 70명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 (3) 閉校

라쿠르 신부가 제주도를 떠나게 됨으로써 晨星女學校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 라쿠르 신부에 이어 金洋洪 신부가 6월 7일 제주읍에 부임하면서

“장래의 희망은 女學校를 保存하는데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sup>123)</sup>

라고 호소하고 晨星女學校의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1년여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이 되다

12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p. 259.

122) 『教區年報(1878~1940)』, p. 49.

123)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 163.

가 일제당국에 의해서 1916년 7월 25일 자진폐쇄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晨星女學校를 위해 가장 애썼던 金 아나다시아 수녀와 李 곤자가 수녀도 눈물을 머금고 동년 7월 27일 서울 본원으로 귀환을 하게 된다. 그 후 교사는 일제당국이 강점, 일본인 본원사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유골안치소로 변하게 된다.<sup>124)</sup>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年 前부터 두 宣教師에 의해 福音化된 濟州島는 拋棄해야만 했습니다. 修女들에 의해 運營되어 번창했던 學校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sup>125)</sup>

라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소식을 전하는 드망즈 주교의 보고는 비감하기만 하다. 이러한 사실이 충격일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구교구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교 가운데 하나가 晨星女學校였기 때문이다.<sup>126)</sup>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던 학교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선교사들의 이동이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일제의 학교 탄압정책 때문이었다. 일제는 특히 「私立學校令」<sup>127)</sup>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단계의 사립학교와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들이 이 법령 밑에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들 때문에 「교육사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들은 우리를 속수무책의 궁지로 몰아 넣습니다. ...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꺾어야만 하는 수많은 고난으로 선교사와 교우들은 거의 용기를 잃고 말았

124) 梁鎭健(1997), 前掲書, p. 440.

125) 『教區年報(1878~1940)』, p. 69.

126) 梁鎭健(1997), 前掲書, p. 440.

127) 1908年 8월에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한 법으로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學部の 인가를 받도록 하고, 당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학교를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습니다。」<sup>128)</sup>라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晨星女學校는 선교라는 의식과 확고한 재정력에 의해 유지되어 오다가 일제의 사학탄압으로<sup>129)</sup> 개교된지 7년만에 폐교를 하게되었다. 晨星女學校의 폐교에 대해, 崔貞淑의 회고에 의하면

“動機는 소위 經營難이란 핑계를 대었지만 프랑스 神父 구마셀로가 全州로 轉勤되어 기회를 노리던 日本官憲들이 強壓을 가한 것이다. 이 때 나는 進明女高普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學父兄들도 學校의 再建을 꾀하였지만 政策的인 彈壓에는 대항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校舍까지 沒收해 버렸다는 것을 뒤에 들었다.”<sup>130)</sup>

라고 하여 정책적 탄압을 강조하였다.

1922년 9월 23일 사제로 서품된 뒤 9월 24일 나주의 노안 본당 겸 서귀포 흥로 본당의 제5대 주임이었던 李京萬(요한) 신부는

「적어도 여학교를 통해 이 지방들을 개화하는 것, 이것이 특히 저를 매우 刺戟합니다。」<sup>131)</sup>

라고 하여 晨星女學校가 폐교되고 나서도 제주도 지역의 전교를 위해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교를 갈망했지만 그 꿈은 성사되지 못하고 해방이 되고 1946년이 되어서야 스위니(Leo Sweeney)신부에 의해 복교된다.<sup>132)</sup>

---

128) 『教區年報(1878~1940)』, p. 61.

129)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 33.

130)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3년 9월 27일 4면.

131) 『초기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p. 153.

132) 梁鎮健(1997), 前掲書, p. 441.

### 3) 기타의 影響

#### (1) 公教育에의 影響

천주교가 제주 근대교육에 끼친 영향은 비단 晨星女學校 경우만은 아니다. 물론 晨星女學校 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내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으로 1910년에 설립된 공립제주농림학교 운영에도 천주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1907년 尹元求에 의해 보통과와 고등과 체계로 개교를 한 사립의 신학교가 1909년의 실업학교령에 의거 1910년 공립제주농림학교가 설립되면서 통합, 폐교되는데 공립제주농림학교는 이제 도내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런데 공립제주농림학교에 1929년부터 20여년 교편을 잡으면서 근대학문인 식물학에 관심을 기울여 제주도의 식물학자로 널리 알려졌던 崔季淳은 晨星女學校 1회 졸업생이었던 崔貞淑의 숙부로서 형님이며 崔貞淑의 부친인 崔元淳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다. 崔元淳은 온건개화파인 金允植<sup>133)</sup>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주도했던 橘圓詩會<sup>134)</sup>에 참석하면서 개화의식을 키워왔으며 또한 일본 근대화의 원조로써 사학육성과 사학중립론을 강조했던 福澤諭吉에게 영향을 받

133) 호 운양(雲養). 1835년 출생, 1922년 사망. 문장가이며 풍운아. 구한말의 병조판서(兵曹判書) 및 외부대신(外部大臣)등을 지냄. 1895년 민비가 살해되는 乙未事變에 연루되어 제주도 종신 유배의 명을 받고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에 적거. 이후 전라도 지도로 옮김. 그의 여러 저서 중 <續陰晴史>에는 제주도 적거 기간동안의 일을 소상히 일기형식으로 써 수록되었는데, 金允植은 崔元淳에 대해 「최원순이 있는데 겨우 22세이나 숙성하고 민달하여 남의 급한 일에 구제하기를 좋아하므로, 섬 사람이 모두 그와 사귀기를 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원(1996), 「續陰晴史」, 김익수 역, p. 27 참조.

134) 金允植이 제주에 유배된 때 귀양정배를 당하여 적거중임에도 옥살이에서 풀려나자마자 외부대신 등의 고위관직을 두루거친 경력과 오지랖 넓은 품위가 작용하여 섬토박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스럼없이 친분을 맺고 사귀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 글을 아는 풍류객 몇 명이 굴림 등지에 정기적으로 모여 詩를 읊으며 풍류를 즐긴다. 崔元淳도 이 풍류패에 합류하는데 이들을 橘圓詩會員이라 했다.

은 朴永孝가 제주에 유배왔을 때도 그와의 남다른 친교를 맺었던 인물이다.

朴永孝가 晨星女學校 설립을 돕자 崔元淳은 그에 부응하여 그의 딸 崔貞淑을 입학시켰던 것인데 崔元淳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부인 박효원과 딸 崔貞淑의 천주교 입교까지 허락하게 되며 崔貞淑의 오빠인 崔光植 내외의 천주교 입교도 허락하고 본인 역시 임종시대세(代洗)<sup>135)</sup>를 받았다.

이런 처지에서 崔元淳의 동생인 崔季淳 역시 천주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았을 것이며 그의 근대학문에 대한 관심 역시 그러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간접적이거나 천주교를 통한 崔季淳의 활동으로 공립제주농림학교 운영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近代 私學에의 影響

기미독립만세 이후 민족운동으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각처에서 구국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족의 장래를 짚어질 역군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3·1운동당시 서울에서 돌아온<sup>136)</sup>, 崔貞淑과 姜平國은 1920년에 제주의 여성계몽에 앞장설 것을 결심하고 성내 남문동 성당 안에서 천주교 신자를 중심으로 한 연령초과 문맹자들을 모아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사실 강습소인 女修園夜學所를 설립하였고<sup>137)</sup>, 가가 호호 방문하며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학을 권유하여 낮에

135) 敎人이 되기 위해서는 약 6개월간의 예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정식으로 洗禮를 받아하나, 특별한 사정(사망이 임박한 경우 등)으로 도저히 洗禮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천주교의 입교를 원하였을 때 주는 洗禮임

136)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前掲書. p. 70.

137) 上掲書. p. 70.

는 미취학 아동을 교육하고 밤에는 3·1운동 이후 급격히 팽창하는 여성 교육을 위하여 가정부인 특히 서울, 일본 등으로 유학한 남성들로부터 구박과 버림을 받은 여성교육에 전력하였다.

女修園의 설립에 대해 崔貞淑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수백명의 남녀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공판을 받아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향에 들어온 나는 무지를 일깨우는 일이 조국을 찾는 첩경임을 착안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절실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동지를 규합, 女修園이라는 학술강습소를 개설하였다. 낮에는 국민학교 과정 50~60명을 밤에는 문맹자와 부녀자들을 가쳤다. <중략> 이 때 남녀공학에 참여한 학생은 20명 내외로 여성교육을 위한 여학교 신설을 절실히 느껴 당시 동지를 규합 200여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물론 무보수로 봉사했다. <중략> 女修園을 어렵게 세우게 된 것도 1916년 晨星女學校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sup>138)</sup>

라고 회고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특히 이들의 한푼의 보수도 없이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일반 유지들은 학교 운영을 돕기위한 장학회가 조직되었다. 그해 梁梅庭(梁洪基 辯護士 再堂姑母)와 洪大玉(朴忠勳 前長官 叔母)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明信夜學所와 통합 私立明信學校를 설립<sup>139)</sup>하여 일반교육에 헌신한 결과 1950~1960년대 제주도의 저명인사 및 기관장 중에는 明信學校의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기간중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부인회를 조직하여 전술한 女修園 야간부 운영에 협조토록 하여 매년 150명 이상의 야간부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부인회원 중 梁梅庭씨로 하여금 일본에 건너가 재일 교포로부터 찬조금을 얻어 속칭 사마재 토지 300평을 구입하고 부인 회관 건축을 추진하는 등 晨星女學校 출신 여성들에 의한 교육

138)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3년 9월 24일 6면, 9월 27일 4면.

139) 上揭書, p. 70.

근대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崔貞淑은

그때 서울 유학생 중 여자는 晨星女學校 출신 高守善, 姜平國과 나 3명뿐이었고 또 한 고향에서 실질적으로 여성 운동에 앞장선 여성 지도자들은 晨星 1회 5명, 2회 6명, 3회 13명들이었음을 자부할 수 있다.<sup>140)</sup>

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렇게 晨星女學校는 1946년 복교되기 이전 제주도의 사학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140)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濟南新聞』, 1973년 9월 17일 6면.



## V. 結 論

한국천주교회는 200여 년전 세계에서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개척적인 신앙심을 발휘하여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에서 신앙공동체를 유지·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서양 선교사들의 공과가 어떠한든 천주교회는 우리 나라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가톨릭 후예들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화기의 혼란한 사회속에서 구빈사업, 구원사업, 교육사업, 언론사업 등을 통해 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국천주교회가 구한말 20여년 간의 教案史로 인하여 한국천주교회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봉건제도 시대에는 여자에게 학교교육이 없었다. 다만 가정안에서 옷 짓고, 밥 짓고, 수공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뿐이다. 조선시대에도 여자교육은 역시 가정에 국한하였다. 보통 문자교육을 받았고 그 외에 계급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가 많았으나 상류나 중류가정 여자의 교육도 개인에 따라서는 그 수준이 높았고 훈민정음이 생긴 뒤에는 중류 이상 가정의 여자들은 소설을 읽고 편지를 읽을 정도의 문맹을 면한 이가 많았으나 중류 이하의 대부분 여성은 전부 문맹이었다. 대개 권문세족과 대가의 여자 가운데 독서, 상식, 제술, 훈민정음과 같은 정도의 범위에서 공부하였고, 詩와 歌詞는 첩과 기생들이 많이 숭상하여 사대부 집안의 여자들은 숭상을 꺼리었다. 그러나 이름난 정부인 가운데 역사상 시인이 더러

있는 것을 보아 숭상한 이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sup>141)</sup>

구한말의 정신적인 주요 과제는 서구문화 수용의 방법에 있었다. 그것은 선진의 문화를 받아들여 국가부강을 이룩하려는 의지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당시의 교육에 대한 열의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여성 자신의 개화는 곧 국가의 문명개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晨星女學校의 개교와 교육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제주에서의 천주교 교육사업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주의 근대 여성교육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晨星女學校의 개교를 통하여 제주도 최초의 서구식교육의 선  
험적 역할을 하였으며

둘째, 계급과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여성의 평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셋째, 晨星女學校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넷째, 여성교육, 초등교육 등 제주교육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嚆  
矢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천주교의 교육 사업은 제주 교육의 근대화에 선험적 역할과 더불어 제주의 공교육 및 근대 사학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신성여학교는 제주도 근대 여성교육의 효시로 제주교육사에 영원히 그 발자취가 남을 것이다.

---

141) 李萬珪(1988), 「朝鮮教育史 I」, 서울: 기획출판 거름, pp. 199~200.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金錫翼(1954), 「增補耽羅誌」, 淡水契.
- 김성태(1985), 「教會안의 歷史」, 왜관 : 분도출판사.
- 金良善(1971),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 基督教文化社.
-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1984),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  
천주교부산교구.
- 孫仁銖(1983), 「韓國近代民族教育의 理念研究」, 서울 : 文音社.
- 吳天錫(1975), 「韓國新教育史(上)」 吳天錫思想文集(5), 서울:光明出版社.
- 柳洪烈(1994), 「增補 韓國天主教會史」 上卷, 下卷, 서울 : 가톨릭출판사.
- 柳洪烈(1980), 「韓國社會思想史 論考」, 서울 : 一潮閣.
- 李萬珪(1988), 「朝鮮教育史 I」, 서울 : 기획출판 거름.
- 李萬珪(1988), 「朝鮮教育史 II」, 서울:기획출판 거름.
-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濟州教育史」,
-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회(1997), 「제주  
복음전래100년사자료집」, 제2집, 제3집, 제4집, 천주교제주교구.
- 崔奭佑(1982), 「韓國天主教會의 歷史」, 韓國教會史研究所.
- 崔奭佑(1982), 「韓國教會史의 探究」, 韓國教會史研究所.
- 韓國教會史研究所(1982), 「韓國教會史論叢」 崔奭佑神父回甲紀念論集,

### <학술 논문>

- 金玉姬(1987),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耽羅文化」 第6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김진소(1987), 天主教의 迫害要因, 「教會와 歷史」, 韓國教會史研究所.

- 治東(1974), 舊韓末 天主教會의 教育事業에 關한 考察, 서울大學  
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김혜선(1989), 개화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金鎬逸(1980), 韓國 近代教育의 成立, 「韓國史學2」,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史學研究室.
- 朴來鳳(1981), 日帝 統治下의 書堂教育의 實態 -濟州島 I-, 「韓國  
教育史學」, 合本 2号中 第6輯,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 朴容玉(1975), 「韓國近代女性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朴贊殖(1995),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社會, 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 裴賢淑(1981), 17·8世紀에 傳來된 天主教書籍, 「教育史研究」, 第3  
輯, 韓國教育史研究所.
- 梁鎭健(1997), 濟州島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耽羅文  
化」第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 李元淳(1979), 韓國天主教 教育事業의 教育史的 意義, 「司牧64号」,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 李元勇(1992), 朝鮮後期 天主教 教育事業이 韓國教育史에 끼친 影  
響, 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朱明俊(1981), 天主教 信徒들이 西洋船舶請願, 「教會史研究」第3輯,  
韓國教會史研究所.
- 車錫基(1991), 朝鮮 西洋思想과 教育, 「教育의 理念과 實踐」, 서울  
: 聖佑出版社.
- 崔善弘(1933), 濟州島의 虐殺事件과 本堂沿革. 「가톨릭研究」9,10月号

崔相龍(1979), 天主教 教育事業에 대한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黃興福(1983), 韓國天主教會 信者教育에 관한 史的 考察, 中央大學  
校 社會開發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신문>

《濟南新聞》, 崔貞淑, 내가 걸어온 길 ①~⑦, 1973년 9월 17일,  
20일, 24일, 27일, 10월 1일, 4일, 8일자.

